

경제협력개발기구, 중간 경제전망 발표

* 부제 : “Testing Resilience”(회복력 테스트)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3.26일(목) 11:00(프랑스 파리 기준, 한국시각 19:00) **중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 경제전망은 매년 2회(5~6월, 11~12월) 세계경제·회원국·G20 국가 대상으로 발표되며, 중간 경제전망은 매년 2회(3월, 9월) 세계경제·G20 국가 대상 발표

【주요내용】

경제협력개발기구는 견조한 모습을 보였던 세계경제가 최근 **중동 지역에서의 분쟁이 심화되면서 그 회복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고**(“testing the resilience of the global economy”) 평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26년 세계 성장률을 2.9%('25.12월 전망과 동일), '27년은 3.0%('25.12월 전망 대비 $\Delta 0.1\%p$)로 전망했다. '26.2월까지의 데이터를 검토할 때 세계 성장률을 지난 12월 전망 대비 $+0.3\%p$ 상향 조정(2.9%→3.2%)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중동 분쟁이 심화되면서 완전히 상쇄($\Delta 0.3\%p$, “entirely erased”)**됐다고 발표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국('25년 2.1% → '26년 2.0%)은 구매력·노동력 감소 등으로 소비가 둔화되고, 유로존('25년 1.4% → '26년 0.8%)은 에너지 가격 상승 영향을 받으며 '26년 성장률이 전년 대비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25년 1.2% → '26년 0.9%)은 신규 확장 재정에 따른 수요 확대가 예상되지만, 에너지 수입 비용 상승이 이를 상쇄하며 마찬가지로 '26년 성장률은 전년 대비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G20 국가의 물가상승률은 최근 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26년 4.0%('25.12월 전망 대비 $+1.2\%p$), '27년 2.7%('25.12월 전망 대비 $+0.2\%p$)로 전망했다.

한편, '26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1.7%('25.12월 전망 대비 $\Delta 0.4\%p$), '27년 2.1%('25.12월 전망과 동일)로 전망했다. 물가상승률의 경우 '26년 2.7%('25.12월 전망 대비 $+0.9\%p$), '27년 2.0%('25.12월 전망과 동일)로 전망했다. 한국 등 중동 에너지 수입 비중이 큰 일부 아시아 국가의 경우 전쟁 장기화시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 생산 활동에 부담이 갈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금번 전망의 경우 “26~27년 미국 실효관세율이 3월 초 수준 유지”, “26년 중반부터 석유·가스·비료 가격 점진적 하락” 등의 기술적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향후 분쟁 양상과 에너지 가격 경로에 따라 GDP, 물가, 공급망 등에 대한 상하방 리스크가 병존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현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선 정부 정책이 적시성(“Timely”) 있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가계·기업을 타게팅(“Targeting”)하며 에너지 절약 유인(“Incentives to lower energy use”)을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를 위해 재정 지원의 종료 시점 설정 및 지속가능성 확보, 공급·구매처 다각화, 금융 안정 체계 도입, 친환경 에너지 활성화 등을 함께 권고했다.

【주요특징 및 대응】

'26년은 중동전쟁으로 인해 대다수 국가가 공통적으로 성장·물가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국은 G20 국가 중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 영국($\Delta 0.5\%p$), 유로존($\Delta 0.4\%p$) 등과 함께 '25.12월 전망 대비 성장 전망이 하향 조정됐다. '26년 세계 성장률은 '25.12월 전망과 같은 수준이나, OECD는 금번 중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2월까지 세계 성장률을 $+0.3\%p$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중동전쟁으로 그 효과가 완전히 상쇄됐다고 언급하여 실질적으로 세계 성장률은 $\Delta 0.3\%p$ 하향 조정된 것으로 평가된다.*

* 당초 OECD 12월 전망은 타기관 대비 '26년 한국 성장률을 높게, 세계를 낮게 평가한 측면, OECD가 중동전쟁 전 상향 검토했던 세계 성장률 3.2%는 IMF 1월 전망 3.3%와 유사한 수준 → IMF 1월 전망 기준으로 금번 OECD 전망의 조정 폭 계산 시 한국 $\Delta 0.2\%p$, 세계 $\Delta 0.4\%p$

(% , %p)		OECD 12월	IMF 1월(A)	OECD 3월(B)	IMF 대비(B-A)
성장률	한국	2.1	1.9	1.7	$\Delta 0.2$
	세계	2.9	3.3	2.9	$\Delta 0.4$

'27년은 중동전쟁 충격에서 벗어나며 한국·세계경제 모두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국은 '27년 2.1% 성장('26년 대비 +0.4%p)해 세계경제('26년 대비 +0.1%p)보다 빠른 회복 속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물가 또한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0%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G20은 2.7%). 이를 감안하면, '26년 한국 성장률 전망 하향조정과 물가 전망 상향조정은 외부 충격에 의한 일시적 영향인 것으로 평가되며 경제 펀더멘탈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여겨진다.

향후 상황 전개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중동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경제적 영향도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 대응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정·세제·금융·규제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최적의 정책조합으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3단계로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1단계로 현재 가용 자원과 수단을 모두 활용해 당장 시급한 물가·공급망·취약부문·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신속 대응방안을 즉시 추진하고, 2단계 조치로 초과세수를 활용한 25조원 수준의 “전쟁추경”을 4월 중 최대한 빨리 시행해 취약부문에 대한 직접·차등 지원 등 위기에 본격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3단계 조치로 5월 이후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경제 안정 추가 대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필요시 즉각 시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 정책 방향은 에너지 위기를 맞아 정부 지원의 ‘적시성’, ‘취약부문 타게팅’, ‘에너지 절약 유인 제공’ 등을 강조한 OECD의 주요 권고사항과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담당 부서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책임자	과 장	조성중 (044-215-2730)
		담당자	사무관	조선희 (whwns56@korea.kr)



참고 1

OECD 중간 경제전망(성장률)

(%, %p)	'26년 전망				'27년 전망		
전망시점	'25년	'25.12월 (A)	'26.3월 (B)	조정폭 (B-A)	'25.12월 (A)	'26.3월 (B)	조정폭 (B-A)
전세계	3.3	2.9	2.9	0.0	3.1	3.0	△0.1
G20	3.3	2.9	3.0	0.1	3.1	3.0	△0.1
유로존	1.4	1.2	0.8	△0.4	1.4	1.2	△0.2
호주	2.0	2.3	2.3	0.0	2.3	2.4	0.1
캐나다	1.7	1.3	1.2	△0.1	1.7	1.7	0.0
독일	0.4	1.0	0.8	△0.2	1.5	1.5	0.0
프랑스	0.9	1.0	0.8	△0.2	1.0	1.0	0.0
이태리	0.5	0.6	0.4	△0.2	0.7	0.6	△0.1
스페인	2.8	2.2	2.1	△0.1	1.8	1.7	△0.1
일본	1.2	0.9	0.9	0.0	0.9	0.9	0.0
한국	0.9	2.1	1.7	△0.4	2.1	2.1	0.0
멕시코	0.6	1.2	1.3	0.1	1.7	1.7	0.0
튀르키예	3.6	3.4	3.3	△0.1	4.0	3.8	△0.2
영국	1.3	1.2	0.7	△0.5	1.3	1.3	0.0
미국	2.1	1.7	2.0	0.3	1.9	1.7	△0.2
아르헨티나	4.4	3.0	2.8	△0.2	3.9	3.5	△0.4
브라질	2.3	1.7	1.5	△0.2	2.2	2.1	△0.1
중국	5.0	4.4	4.4	0.0	4.3	4.3	0.0
인도	7.6	6.2	6.1	△0.1	6.4	6.4	0.0
인도네시아	5.1	5.0	4.8	△0.2	5.1	5.0	△0.1
남아공	1.1	1.3	1.2	△0.1	1.5	1.7	0.2

참고 2

OECD 중간 경제전망(소비자물가)

(%, %p)		'26년 전망			'27년 전망		
전망시점	'25년	'25.12월 (A)	'26.3월 (B)	조정폭 (B-A)	'25.12월 (A)	'26.3월 (B)	조정폭 (B-A)
G20	3.4	2.8	4.0	1.2	2.5	2.7	0.2
유로존	2.1	1.9	2.6	0.7	2.0	2.1	0.1
호주	2.8	2.7	4.1	1.4	2.5	2.5	0.0
캐나다	2.1	2.1	2.4	0.3	2.0	2.0	0.0
독일	2.3	2.1	2.9	0.8	2.4	2.6	0.2
프랑스	0.9	1.3	1.8	0.5	1.6	1.5	△0.1
이태리	1.6	1.7	2.4	0.7	1.8	1.8	0.0
스페인	2.7	2.3	3.0	0.7	1.8	2.2	0.4
일본	3.2	2.2	2.4	0.2	2.1	1.9	△0.2
한국	2.1	1.8	2.7	0.9	2.0	2.0	0.0
멕시코	3.8	3.3	3.8	0.5	2.9	3.2	0.3
튀르키예	34.9	20.8	26.7	5.9	11.7	16.9	5.2
영국	3.4	2.5	4.0	1.5	2.1	2.6	0.5
미국	2.6	3.0	4.2	1.2	2.3	1.6	△0.7
아르헨티나	41.9	17.6	31.3	13.7	10.0	14.1	4.1
브라질	5.0	4.2	4.1	△0.1	3.8	3.8	0.0
중국	△0.1	0.3	1.3	1.0	0.8	1.1	0.3
인도	2.0	3.4	5.1	1.7	4.0	4.1	0.1
인도네시아	1.9	3.1	3.4	0.3	3.2	2.6	△0.6
남아공	3.2	3.6	3.9	0.3	3.2	3.3	0.1